

협회소식

본회,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생산비 절감을 최우선 사업 목표로



본회는 지난 2월 22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생산비 절감을 '94년도 최우선 사업목표로 결정했다.

전동용 회장의 주재로 7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3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94년도 회비 부과 기준(안) ▲'94년도 자조금 부과 기준(안) ▲'9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감사 선임안 등을 심의, 승인했다.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양돈농가 수는 58만호에서 7만호로 대폭 감소했으며 수입개방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협회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노영환 전무이사과 박대관 감사로부터

'93년도 협회 사업실적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의안심의에 들어갔다. 대의원들은 '93년도 결산안을 승인하고 '93년 수준으로 유지시킨 '94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기준(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승인했으며 '94년도 협회 사업목표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고 ▲양돈생산물 판로 확대 ▲돼지고기 수급조절 ▲돼지가격 안정도모 ▲돼지고기 소비촉진 ▲검정사업의 내실화 등 세부실천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의원들은 이어 유진현 김천지부장과 이현운 감사로 임기 2년의 감사로 선출하고 김성곤 영천지부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관련기사 40쪽>

본회, '94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2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을 비롯한 17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제1차 정기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전동용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회에서 참석자들은 ▲'93년도 결산안 ▲'94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기준안 ▲'9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신규지부 설립승인안 ▲지부설립승인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3년은 격동의 한해였으며 올해는 양돈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과 협회 활성화를 위한 힘의 집결에 이사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대관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도 관세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조금제도 입법화 등 현안 타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전동용 회장 이하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자조금사업과 경영지도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93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제1검정소의 검정돈사 증축으로 인해 기존건물을 철거함으로써 발생한 장부가액 등의 결손처분안을 승인하고 각회계 항간 초과분과 미달분 발생으로 인한 회계별 항간 전용안을 승인했다.

'94년도 회비 및 자조금은 '93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고 자조금은 6월 30일까지, 회비는 10월 30일까지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6월 30일까지 회비완납시는 완납금액의 10%를 지부 운영보조비로 교부키로 했다.

또한 최근 신규지부를 설립하고 승인신청을 한 해남, 남해지부 등 2개 지부의 설립을 승인하고 현재 회원수가 부족한 강진지부에 대해서는 2월중으로 지부설립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지부설립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들 3개지부의 설립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본회의 지부수는 총 90개로 늘어나게 된다.

또 현재 부산시지역에도 회원이 많고 부산·경남 양돈도매시장과 부산시에서의 업무협조사항이 많은 김해지부를 부산·김해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지부설립승

인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의 승인사항과 임기만료한 감사선임안 등은 제15차 정기총회에 부의된다.

전동용 회장 「농발위」 위원으로 위촉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 정식 발족



전동용 회장

본회 전동용 회장이 농어촌문제에 대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2월 1일 청와대에서 전동용 회장 등 농어민단체, 학계, 연구계, 언론계, 재계, 여성계 인사 30명을 농발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장이 위촉되었다.

농어촌발전위는 2월 1일 발족과 함께 사무국이 설치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발위는 위원들을 ▲농업경쟁력강화 소위(13명) ▲농어촌 산업진흥 소위(8명) ▲농어민 후생 복지 소위(8명) 등 3개 소위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키로 했으며, 6월초까지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전동용 회장은 농업경쟁력강화 소위에 배정되었다.

본회 회원 등 많은 축산농가들은 전동용 회장이 농발위에 참여함으로써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축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본회,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지원 확대 건의

본회는 지난 1월 21일 농림수산부에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에서 현재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조를 60%정도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농가를 위주로 연 3%의 금리에 3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되던 용자도 대규모농가를 포함한 전농가에 대해 1%의 금리에 10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설별 지원비율을 보면 간이정화시설과 정화시설은 60%의 보조와 40%의 용자로, 축분발효시설은 60%의 보조와 30%의 용자, 10%의 자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본회가 이같이 요청한 것은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축산농민들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고 현행 자금지원조건이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편 본회의 이러한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부에서는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50% 용자 50%,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40% 용자 50%의 지원비율 조정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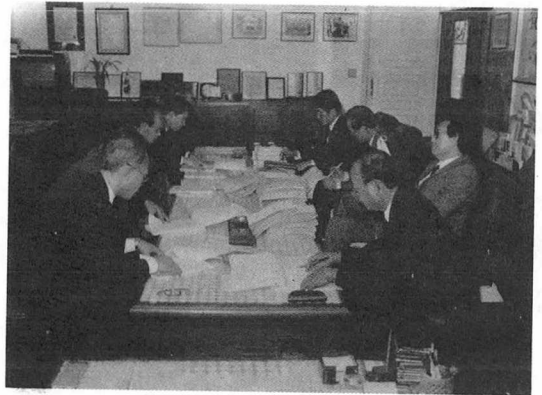
본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농림수산부가 지난 1월 5일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양축농민이 관리수의사를 두는 데 따르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해외질병 발생시 축산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회는 이에 대해 그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은 새로운 해외질병이 발생하여 양축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조항을 신설토록 요청했다.

또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신고하지 않은 양축가와 수의사,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양축가, 시험연구 이외의 용도로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을 금지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조항을 징역은 삭제하고 벌금형에만 처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 '93년도 결산감사 수감



본회는 지난 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본회 박대관 감사로부터 '93년도 결산감사를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박대관 감사는 '93년도 본회의 일반회계, 홍보회계, 자조금회계, 제1·제2검정소회계 등에 대한 결산회계감사와 회무 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했다.

전 안동지부장 배장규 씨, 안동축협조합장에 당선



배장규 조합장

전 안동지부장 배장규 씨가 지난 1월 22일 안동축협 조합장에 당선됐다.

이날 안동축협에서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배장규 후보는 함께 출마한 김완섭 후보를 987 : 771표의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배장규 조합장은 본회 안동지부장을 비롯해 안동축협 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유기농업협회 안동지회장과 낙농강 원수보전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14년간 축산에 몸담아 온 배 조합장은 현재 안동군 북후면 도진리에서 돼지 2,000두, 한우 80여 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배 조합장은 현재 안동지역 축산관련단체의 사무실을 안동축협 건물내로 마련,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시장조사, 유대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본회 강진지부 설립

— 초대 지부장에 노정수 씨 선출

본회 강진지부가 지난 1월 1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회에 설립승인을 신청, 본회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회 89번째 지부로 정식 출발했다.

강진지부는 이날 강진읍 강남회관에서 16명의 회원 중 15명이 출석, 노정수 씨(46세)를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강진읍 남성리 50-17

번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노정수 지부장은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에서 455두 규모의 양곡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과 사무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 노정수

▲부지부장 : 이규봉

▲감사 : 김주관, 정주태

▲운영위원 : 최문석, 김연동, 곽태일

▲주소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50-17번지

해남지부 설립

— 초대 지부장에 권성래 씨 선출

본회 해남지부는 지난 12월 지부창립준비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에 설립승인을 신청, 이사회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 90번째 지부로서의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다.

22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해남지부는 아름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권성래 씨(53세)를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해남축협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편 해남지부는 이영선 양을 채용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 권성래

▲부지부장 : 임병남

▲감사 : 박주남, 김일선

▲총무 : 이민석

▲전화 : (0634)536-4989

김해지부, 부산·김해지부로 명칭 변경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 김위진)가 부산·김해지부로 변경됐다.

김해지부는 부산지역에도 소속 회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와 부산·경남 양돈도매시장 등에서 업무협조요청이 많으며 대도시인 부산시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촉진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31일 본회에 지부설립승인 변경안을 제출했었다.

이 변경안이 지난 2월 4일 본회 정기 이사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영일·포항지부, 영포축산영농조합법인 설립

영일·포항지부(지부장: 강충열)가 지난 12월 21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경영합리화로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에 설립된 영포축산영농조합법인은 총 21명의 조합원이 1좌당 10,000원씩 각각 500좌씩을 출자해 이루어졌으며 본회 영일·포항지부장인 강충열 씨를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영포축산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농축산업 경영, 축산물 가공·판매,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축산기계 및 시설 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영포축산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은 본회 영일·포항지부와 공동 사용한다.

전 창녕지부장 성낙봉 씨, 창녕축협조합장에 당선

본회 전 창녕지부장이었던 성낙봉 씨가 지난 2월 4일 창녕축협에서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새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성낙봉 후보는 이날 함께 출마한 신무 후보를 843:569라는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성 조합장은 오는 3월 5일부터 4년간 조합장직을 맡게 되며 현재 창녕읍 봉천리에서 매일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본회 남해지부 설립

— 초대 지부장에 조철 씨 선출

본회 남해지부가 지난 1월 1일 남해축협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 지부장에 조철 씨(40세)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본회에 설립승인을 신청, 지난 2월 4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의에서 설립을 승인 받았다.

이로써 남해지부는 본회 88번째 지부로서의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날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조철 씨는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서 500두 규모의 제7축산을 경영하고 있다.

남해지부는 현재 2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해축협 2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지부장: 조철

▲부지부장: 신주철

▲운영위원: 최희주, 박재인, 이종명, 박홍수

▲감사: 현옥동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422-5(축협 2층)

▲전화번호: (0594)62-2115(축협과 공동사용)

마산지부장에 김준수 씨 선출

마산지부는 지난 1월 22일 마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지부장에 김준수 씨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하고 '93년 사업실적 및 예·결산과 '9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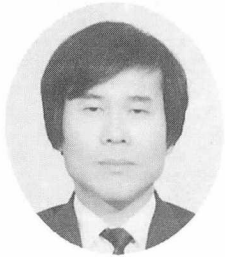
신임 김준수 지부장은 현재 창원군 진전면 근곡리에서 500두 규모의 명일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지부장: 김준수

- ▲부지부장 : 이용모, 이지원
- ▲감사 : 조봉희, 전종문

부여지부장에 박승균 씨 선출



박승균 지부장

부여지부는 지난 1월 28일 부여축협 강당에서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94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93년도 지부사업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새 지부장에 박승균 씨(42세)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했다.

신임 박승균 지부장은 현재 부여축협 감사로 있으며 부여군 임천면 점리에서 800두 규모의 임천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 박승균
- ▲부지부장 : 최원식
- ▲운영위원 : 김용복, 임주상, 김광, 서병린, 박병직, 박병오
- ▲감사 : 최명호, 김선식

의령지부장에 김정수 씨 선출



김정수 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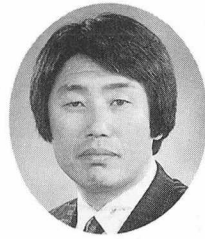
의령지부는 지난 12월 18일 정기총회를 열어 김정수 씨(43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선했다.

신임 김정수 지부장은 지난 '78년에 양돈을 시작, 현재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에서 대의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날 개선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지부장 : 김정수
- ▲부지부장 : 황규학, 손백현
- ▲총무 : 심차용

광양지부장에 허도구 씨 선출



허도구 지부장

광양지부는 지난 1월 2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양보석 지부장 후임에 허도구 씨(44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허도구 지부장은 현재 진원농협 이사와 광양축협 대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광양군 진월면에서 돼지 600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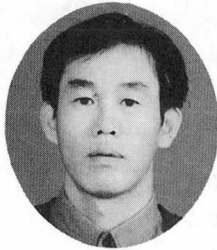
한편 광양지부는 지난해 10월 정의순 양(23세)을 새로 채용했다.

진주지부장에 김광위 씨 선출

진주지부는 지난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지부장으로 김광위 씨를 선출했다.

신임 김광위 지부장은 현재 진양군 명성면 오미리에서 1,000두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울산지부장에 유재환 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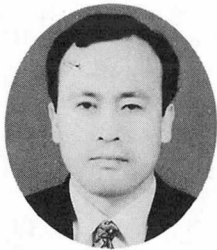
유재환 지부장

울산지부는 지난 1월 31일 정기총회를 갖고 새 지부장에 유재환 씨를 선출했다.

유재환 지부장은 울산지부 총무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경남양돈조합 대의원으로 있다.

유재환 지부장은 현재 울산군 삼남면 상천리에서 1,500두 규모의 재남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고성지부장에 이영춘 씨 선출



이영춘 지부장

고성지부는 지난 12월 20일 임시총회를 갖고 최경규 지부장 후임에 이영춘 씨(40세)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영춘 지부장은 고성군 농민후계자연연합회장, 고성청년회의소 상임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고성군 동해면 외곡리에서 돼지 1,000두 규모의 대광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업 회 단 신

제주지부 사무실 이전

제주지부(지부장 : 김충세)는 지난 2월 16일 지부 사무실을 아래 주소로 이전했다.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05-3번지 제주하와 이오피스텔 321호

▲전화번호 : (064)40-9121

영주·영풍지부 사무실 이전

영주·영풍지부(지부장 : 황동섭)가 지난 2월 8일 아래 주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는 변경없다.

▲주소 : 경북 영풍군 풍기읍 성내4동 188번지

본회 신규직원 채용



유재연 양

본회는 지난 2월 14일 총무부에 유재연 양을 새로 채용했다.

유재연 양은 춘천 유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창기연주식회사 등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었다.

한편 총무부에 근무하던 황경자 양은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 ☎